

## 고소설 권선징악론 비판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이정원\*

<차례>

1. 서론
2. 고소설 권선징악론 검토
3. 고소설 권선징악론 비판
4.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고소설 권선징악론을 검토하고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하고자 하였다.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의미의 권선징악은 오랫동안 고소설을 설명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되었다. 그 세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고소설은 구성이 권선징악으로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고소설은 주제가 권선징악으로 천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기존 논의에서는 권선징악의 보편성으로써 반박이 있었다. 즉, 권선징악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이에 대한 예술적 추구가 비판될 수 없고, 또한 권선징악은 비단 고소설뿐만 아니라 계몽적 성격을 띠는 다른 소설에서도 발견되므로 고소설에 대한 비판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박은 고소설 권선징악론이 소설사에서 고소설로부터 근현대소설이 분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편협한 판단이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소설이 권선징악의 특징을 지녔다는 주장과 그것이 고소설의 예술적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박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이에 대해 소설의 구성과 주제, 나아가 예술적 가치는 작가 중심적

\* 경기대학교 부교수

관점이나 형식주의 관점이 아니라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 세부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수용을 증시하는 관점에서 볼 때,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형상화 사이의 관계는 매우 불안정하다. 둘째, 독자의 수용 체험에 의해 작품이 완성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고소설의 구성과 주제가 권선징악이라는 주장은 작품에서 선형적인 구조를 가정하여 독자의 체험을 무시하는 해석적 독재이다. 셋째, 소설에 대한 독자의 수용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의 심화를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고소설 권선징악론은 소설 텍스트의 수용을 도덕적 범주로 획일화한다. 이는 텍스트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독서 체험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진실이 아니다.

□ 고소설, 고전소설, 권선징악, 도덕, 수용미학, 독자

## 1. 서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의미의 권선징악(勸善懲惡)<sup>1)</sup>은 개화기 이후, 오랫동안 고소설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되었다.<sup>2)</sup> 고소설의 문학적 면모를 ‘권선징악’이라는 도덕적 측면으로 환원하

1) 조현우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선을 권면하고 악(인)을 징치한다’는 의미로 보고, ‘권선’이 서사 밖의 실제 독자를 향한 것이라면, ‘징악’은 서사 안의 등장인물로서 악인을 향한 것이어서 서로 층위가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선’이 실현되어야 할 규범이라면 ‘악’은 이미 실현된 구체적 실체로서의 행위나 그 행위 주체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현우, 『고소설의 악과 악인 형상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 『우리말글』 41, 우리말글학회, 2007, 194~195쪽.

2) 고소설 권선징악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다음의 논저를 참조하시오. 강재철, 『고전소설의 주제 ‘권선징악’의 의미』, 『국어국문학』 99, 국어국문학회, 1988, 133~147쪽; 강재철, 『권선징악 이론의 전통과 고전소설』,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1993.; 김경애, 『‘권선징악’에 대하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5, 405~430쪽; 강재철, 『권선징악 이론의 전통과 고소설의 비평적 성찰』, 단국대학교출판부, 2012; 지촌강재철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고전소설과 권선징

는 이러한 현상은 고소설과 구별되는 근대소설의 독자성을 우월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빚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고소설의 예술적 특징을 권선징악으로 치부하는 것은 이론적 검토에 앞서 실증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우리 고소설사에서 선인이 승리하고 악인이 징치당하는 구성을 갖춘 소설의 유행은 가정소설, 판소리계 소설, 영웅소설이나 군담소설의 출현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대체로 18세기 이후의 현상이다. 소설사의 첫머리를 장식한 전기소설이나 이후의 애정소설, 풍유록 소설, 심성가전 등은 권선징악과 거리를 두었다.

둘째, 방각본이나 세책본의 유행으로 성장한 통속 소설에서도 권선징악은 선입견과 달리 일부 작품에 불과하다. 가령 처첩형이나 계모형 가정소설의 경우 첩이나 계모라는 악인이 등장하여 징치되지만, 장편 가문소설의 경우 작품의 구성을 권선징악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물의 다양성과 사건 전개에의 복합성에 근거하여 볼 때 매우 소박한 견해이다. 판소리계 소설의 실상은 더욱 선입견과 배치된다. 악인 뽕덕어미의 등장은 <심청전>의 변모 과정에서 판소리 연행의 영향으로 이해되며<sup>3)</sup>, 뽕덕어미의 징치는 완판 <심청전>에서 두드러질 뿐 다른 이본들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심지어 문장체 소설 <심청전>에서는 아예 뽕덕어미가 등장하지도 않는다. 또한 <토끼전>이나 <화용도> 등에서는 선악의 도덕성으로써 인물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이 작품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배비장전>이나 <이춘풍전>과 같이 조선 후기의 세태를 풍자한 작품들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후의 논의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영웅

악』, 단국대학교출판부, 2013.

3) 뽕덕어미 삽화의 출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김영수, 『필사본 심청전 연구』, 민속원, 2001, 373~396쪽.

소설이나 군담소설에서 사건 전개나 인물 유형을 선악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소설의 대응을 소박한 도덕적 교화로 제한하는 매우 피상적인 접근이라 하겠다.

즉, 한국 고소설의 일반적 특징으로서 권선징악을 제시하는 것은 소설사의 실상과 개별 작품의 실상에 비추어 선부른 일반화의 오류에 가깝고 작품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 제기된 권선징악론의 근거가 박약한 것과는 별도로, 조선 시대에 권선징악은 작품을 권장하거나 설명할 때에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가령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일락정기>, <숙향전> 등의 서문에서 작자는 권선징악의 효용으로써 작품의 가치를 피력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문본 <창선감의록>의 서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나는 요즘 천식으로 집에서 몸조리를 하며 지낸다. 가끔 부인네들에게 여항의 한글소설을 읽으라 하여 듣곤 하는데 그중에 <원감록(冤感錄)>이란 것이 있었다. 서로 복수하고 원수를 갚는 내용이 몸이 떨리고 뼈가 시릴 정도로 끔찍하지만,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흥하고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점은 사람을 감동시켜 교훈이 될 만하다.”<sup>4)</sup>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흥하고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점을 작자는 <창선감의록>의 교훈으로 제시하여 독서를 권장하고 있다. 권선징악으로써 소설의 가치를 이해하고 독서를 권장하는 것은 비단 한문소설만이 아니라 국문소설에서도 확인된다. 가령,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의 성장과 관계 맺으며 발전했는데, 판소리 사설의 개작과 관련하여 1873

4) 이지영 역, 『창선감의록』, 문학동네, 2010, 19쪽. “余近以痰火養病潛臥, 使婦人輩讀閭巷間諺書小說而聽之. 其中有所謂冤感錄者, 其冤報相仍, 慳愴酸骨. 然爲善者必昌, 爲惡者必敗, 有足可以動人而懲勸者矣.” 번역은 이지영의 것을 따른다.

년 정현석(鄭顯奭)은 신재효(申在孝)에게 보낸 편지 <증동리신군서(贈棟里申君序)>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전략)... 우리 동방의 창부(倡夫)들의 노래는 옛날 배우들의 그것과 매우 방불하여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등은 모두 권선징악을 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그 사람(唱者)이 천하고, 그 사실이 비루하며, 그 말이 많이 이치에 어긋나서 이를 듣는 자들이 한갓 우스개거리로만 여기고 그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sup>5)</sup>

정현석은 판소리 사실이 권선징악을 하기에 충분한데, 광대가 그 본뜻을 이해하지 못해 사실이 비루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는 신재효가 사실을 개작하는 데에 방향성을 제시했던 것으로 추측된다.<sup>6)</sup> 중요한 것은 권선징악이 국한문을 가리지 않고 소설을 권장하는 중요한 사유로 원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장은 도를 심는 것이라는 문이재도(文以載道)의 문학관과 있는 일을 서술하기만 할 뿐 있지 않은 일을 지어내지는 않는다는 술이부작(述而不作)의 문학적 전통에서 소설 자체를 폄하하면서도 권선징악의 도덕적 효용을 내세워 소설 창작과 독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권선징악의 효용이야말로 조선 시대에 소설 옹호론의 가장 중요한 근거였던 것이다.

그러나 근대문학사의 초기부터 제기된 고소설 권선징악론은 조선 시대의 소설 옹호론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즉 조선 시대의 소설 옹호론이 권선징악을 일부 소설 작품 향유의 긍정적 사유로 제기했던 것과 달리, 근

5) “我東倡夫之歌 殆彷彿乎古之俳優 春香沈清興富等歌 皆足以勸善懲惡 但其人也賤 其詞也俚 語多悖理 聞者徒爲戲笑之資 亦不解其本旨矣” 김중철, 『판소리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6, 212쪽에서 재인용. 번역은 김중철의 것을 따른다.

6) 위의 책, 212쪽.

대 이후의 권선징악론은 권선징악을 고소설 일반의 본질적 특징으로 간주하였고, 이를 고소설이 문학적 근대성을 갖추지 못한 징표로 폄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권선징악의 도덕적 지향을 지닌 작품은 고소설 작품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권선징악적 특징을 지니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써 작품의 근대성과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개화기 이후 제기된 고소설 권선징악론의 요점과 이에 대한 그간의 비판을 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고소설 권선징악론을 비판하고자 한다. 권선징악론 비판은 고소설의 예술성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나아가 교육 현장에서 고소설의 교육적 의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 2. 고소설 권선징악론 검토

이 장에서는 고소설 권선징악론의 요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그간의 비판을 검토하고자 한다. 고소설 권선징악론은 고소설은 주제와 구성이 권선징악적이라는 평가를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강재철, 김경애 등의 논의<sup>7)</sup>에서 충분히 소개가 되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쟁점을 소개함으로써 이후 논의의 전제로 삼고자 한다.

고소설 권선징악론의 첫 번째는 고소설은 구성이 권선징악으로 천편일률적이라는 주장이다. 가령 임화는 이인직의 신소설 <은세계>를 평가하면서 “<은세계>는 분명히 구소설의 유형을 파괴한 작품이요 권선징악의

7) 강재철(1993), 앞의 논문. 김경애(2005), 앞의 논문.

넓은 소설방법에 해방된 작품이다. 이것은 곧 소설사에 있어 넓은 전통으로부터 완전한 분리이며 새로운 기원의 건립이다.”라고 하였다.<sup>8)</sup> 그가 말한 ‘권선징악의 넓은 소설방법’이란 “악한 후실, 간교한 노파, 그것과 연결된 외부의 악한 천인 등의 배치는 이 소설의 기승전결이 된 권선징악주의와 더불어 모두 구소설의 조박(糟粕)들이다.”라는 언급에서 보다 선명해진다.

고소설 유형에 대한 임화의 평가는 후대로 계승되고 심화되었다. 가령 이재선은 고소설의 권선징악 유형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권징적(勸懲的) 관념강세(觀念強勢)의 구성에서 현실적 논리적 연계 구성(連繫構成)으로: 전대소설(前代小說)의 갈등은 주로 선악(善惡)의 이원적 대립이다. 인물 설정에서 비롯되는 이 대조 관계는 전대소설의 구성이 흔히 이용하는 수법의 하나다. 그래서 구성에 있어서도 권선징악의 관념이 강조된 나머지 사건이 아무리 우여곡절의 교차를 겪었다 할지라도 중국에 가서는 선적(善的) 당위성(當爲性)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구성이다. 따라서 그 결말은 으레 성취로 이루어지는 종결적 폐쇄성을 갖게 되나, 우발성이나 비현실적인 사건 연계가 개입하기가 보통이다.”<sup>9)</sup>

이재선은 고소설이 당위적인 도덕관에 입각하여 권선징악의 구성을 띠었고 현대소설은 이를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고소설은 선악의 대립에서 선인의 우연한 승리를 그리는 뻔한 구성을 보여준다는 이러한 평가는 고소설이 결국 상투적인 구성으로써 현실 사

8) 임화의 언급은 『개설조선신문학사』, 김외곤 엮음, 『임화전집2』, 박이정, 2001, 231쪽, 342쪽. 김경애(2005), 앞의 논문, 422쪽에서 재인용.

9)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79, 24쪽. 김경애(2005), 앞의 논문, 416~417쪽에서 재인용.

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함으로써 고소설의 진실성을 폄하한다. 또한 상투적인 구성은 새로운 문학적 체험을 선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고소설 작가 의식의 안일함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고소설 권선징악론의 두 번째는 고소설은 주제가 권선징악으로 천박하다는 주장이다. 가령 이광수는 현상 소설을 심사한 뒤 많은 작품들이 고소설의 “천박한 권선징악적 교훈 비유담”을 답습할까 걱정했다고 감상을 피력했다.<sup>10)</sup> 교훈주의적 문학관으로부터의 탈피를 근대소설의 출발로 삼은 이광수의 입장은 후대로 계승되었다. 가령 권보드레는 이광수의 문학관에 대해, “선(善)과 미(美)만 취하는 교훈적 권선징악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야말로 현실성과 예술성의 획득에서 핵심적인 관건”이었다고 평가했다.<sup>11)</sup>

고소설의 주제가 권선징악이어서 천박하다는 비판은 소설의 효용론에서 비롯되고 있다. 일찍이 이해조가 『자유종』에서 <춘향전>은 음탕 교과서, <심청전>은 처량 교과서, <홍길동전>은 허황 교과서라고 말한 까닭은 그런 작품들을 읽으면 아름다운 풍속과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론 때문이었다.<sup>12)</sup> 즉 권선징악의 주제는 소설을 통해 현실을 개혁하려는 계몽주의자들 눈에는 현실의 침예한 갈등을 담아내지도 못하고, 객관적이고도 냉정한 전망을 보여주지도 못한 채, 안일하고도 당위적인 현실인식을 보여줄 뿐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권선징악의 주제를 ‘천박한’ ‘교훈’이라고 말함으로써 고소설의 ‘현실성’은 무의미한 것으로 폄하된다.

10) 이광수, 『현상소설고선여언(懸賞小說考選餘言)』, 『청춘』 12, 1918, 3쪽. 김경애 (2005), 앞의 논문, 423쪽에서 재인용.

11) 권보드레,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2, 228쪽.

12) 이해조, <자유종>, 권영민 외, 『구마검 모란병 자유종 산천초목 화의 혈』, 서울대학 교출판부, 2003, 192쪽.



고소설의 구성과 주제가 천편일률적으로 권선징악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권선징악이라는 도덕적 지향이 갖는 의의에 근거하여 반론이 있었다. 가령, 강제철은 권선징악은 ‘휴머니즘의 소산’이므로 인류가 ‘영원히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사고’이며, 작품의 유형화는 주제와는 상관없이 다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즉, 고소설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폄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sup>13)</sup> 천정환은 강제철의 논리를 발전시켜 권선징악은 ‘시적 정의(poetic justice)’처럼 인류적 보편성을 지녔기에, ‘공리주의를 목적으로 삼는 계몽주의적 문학관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고소설의 권선징악을 비판했던 이광수조차 선악의 대립을 ‘자기희생적 계몽과 민족주의’와 ‘유교나 향락적 세계관, 사회주의’의 대립으로 바뀌어서 ‘갱신된 권선징악적 세계관’을 작품에 구현했다고 하였다.<sup>14)</sup>

이들의 비판은 권선징악이라는 주제와 구성이 시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보편성을 띠고 있음에 근거하여 고전소설 권선징악론이 부당하게 고소설을 퇴행적이고 진실되지 못한 작품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근대문학사 초기에 고소설로부터 근대소설이 분기하는 과정에서 근대소설의 변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려진 편협한 판단이었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강제철과 천정환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낭만적 현실과 당위’를 그려내는 권선징악적 작품이 치열한 갈등으로 뒤범벅된 현실에 대한 예술적 응전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여전히 두 연구자의 반론은 고소설의 소박한 도덕성과 구성을 옹호

13) 강제철(1988), 앞의 논문, 136~137쪽.

14) 천정환, 『계몽주의 문학과 ‘재미’의 근대화』, 『역사비평』 2004년 봄호(통권66), 역사비평사, 2004, 357~359쪽.

하는 것일 뿐, 권선징악의 계몽성에 낙인된 단일한 현실 인식과 그 전제성의 폐해<sup>15)</sup> 등에 대해서는 논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 반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소설 권선징악론은 두 가지 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먼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소설의 창작 동기가 권선징악의 교화주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실제로 고소설은 선악의 대결과 선인의 우연한 승리를 그린 것으로 이해되는 작품들이 많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이런 점들에 근거하여 소설사에서 고소설로부터 분기되는 근현대 소설의 변별적 자질로 권선징악에서의 탈피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작가 중심적 관점과 형식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문제는 달라진다. 고소설 권선징악론은 근본적으로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구조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선형적인 구조가 독자의 수용을 규정한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문학작품을 통한 도덕교육적 가치의 구현은 근본적으로 독자의 능동적인 수용과 감상 행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sup>16)</sup>는 점에서 관점의 전환은 매우 중요하다.

15) 권선징악적인 군담소설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왜곡한다거나, 교화성이 두드러지는 <진대방전>과 같은 작품들이 도덕 규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아예 차단한다는 점 등이 '전제성의 폐해'로 거론될 수 있겠다. 물론 『삼강행실도』와 같은 교화서는 기본적으로 도덕 규범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체적이고, 또한 그래서 폭력적이다.

16) 도덕성의 발달을 위한 문학교육의 기여에서 '수용'의 능동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시오. 우한용, 「문학교육과 도덕성 발달 : 문학교육과 도덕성 발달의 의미망」, 『문학교육학』 14, 한국문학교육학회, 2004, 33~34쪽. 정재찬, 「문학교육과 도덕적 상상력」, 『문학교육학』 14, 한국문학교육학회, 2004, 41~78쪽.

### 3. 고소설 권선징악론 비판

이 장에서는 고소설 권선징악론에 대해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겠다. 앞 장에서 고소설 권선징악론은 고소설의 구성과 주제를 문제 삼았고, 이에 대한 반론이 타당성과 더불어 한계 또한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고소설의 예술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문학 작품의 가치는 결국 독자의 수용 행위를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고소설 권선징악론 또한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먼저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수용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형상화 사이의 관계는 매우 불안정하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된다. 첫째는 작가의 의도란 그 자체로 매우 추상적인 것이므로 그것과 구체적인 작품 사이에서 의도의 현현과 실현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보장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작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썼든 작품의 완성도나 양태는 그것과는 상대적으로 분리된 문제인 것이다. 둘째는 작품의 가치와 의미는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독자의 독서 체험을 통해서만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독일의 수용미학자 야우스(Hans Robert Jauss 1921~1997)가 밝힌 것처럼, “문학 작품은 어떤 시대의 어떤 관찰자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제공하는 자체로 성립되어 있는 대상물이 결코 아니다. 문학 작품은 또한 독백하는 양 자신의 시간 초월적 본질을 현시하고 있는 기념비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문학 작품은 하나의 총보(總譜)처럼, 텍스트를 말의 질료로부터 해방시키는 독서의 반향에 놓여 있다.”<sup>17)</sup> 그러므로 작가의 의도

17) HR.야우스, 장영태 역, 『문예학의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문학과 지성사, 1983, 180쪽.

로써 작품의 문학적 의의를 따지는 것은, 독자의 독서 체험으로써 추상되는 작품이라는 진정한 평가 대상을 외면한 가상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설혹 고전소설들이 ‘권선징악’이라는 교화주의의 산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작가의 도덕적 창작의도와 무관한 예술작품으로서의 자율성을 지닌다. 그리하여 예술적 자율체로서 개별 작품은 독자에게 예술적 체험의 본질이라 할 심미적 고양을 지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씨남정기>의 사례는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예술성 구현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잘 보여준다. 김춘택(金春澤 1670~1717)은 국문본 <사씨남정기>를 한문본으로 번역하면서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작가의 의도를 밝혔다.

“<남정기>는 본래 우리 서포 선생께서 지으신 책이다. 그런데 그 사건은 인가(人家)의 부부와 처첩 사이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다. …(중략)… 선생께서 언문으로 이 소설을 지으셨던 까닭은 여항(閭巷)의 부녀자들로 하여금 모두 쉽게 읽고 감화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본디 또한 우연히 그렇게 지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 때문에 제자서(諸子書)의 반열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나는 일찍이 그 점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sup>18)</sup>

김춘택은 서포가 <사씨남정기>를 부녀자들을 감화하려고 지었지 우연히 지은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씨남정

18) 김만중, 이래종 역, 『사씨남정기』, 태학사, 2004, 9~10쪽. “記我西浦先生所作, 而其事, 則以人夫婦妻妾之間. 然讀之者, 無不咨嗟涕泣, … 然先生之作之以諺, 蓋欲使閭巷婦女, 皆得以諷誦觀感, 固亦非偶然者. 而願無以列於諸子, 愚嘗病焉.” 번역은 이래종의 것을 따른다.

기>의 교화주의적 창작의도로써 작품의 실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사씨와 교씨의 갈등을 선악의 대립으로 환원하는 것은 교씨의 인성으로 환유된 처첩제의 본질적 해악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써 남편 유연수의 우매한 태도는 가부장제가 지닌 남성 중심주의와 그 폐단을 폭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작품의 실태는 교화주의적 창작 의도와 무관하게 작품이 이룬 성취로 평가할 수 있다. 그만큼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형상화 사이의 관계는 불안정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작가로부터 작품을 독립시키고 동시에 작품의 예술적 성취를 독자들에게 개방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씨남정기>를 서포의 의도와 무관하게 수용하는 것은 현대 연구자의 입장일 뿐이어서, 그러한 개방적인 해석으로써 작품의 실제와 독자의 체험을 설명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학 작품과 독자 사이의 관계를 여전히 작가 중심적 관점에 묶아매려는 편견에 기초하고 있다. 문학 작품과 독자 사이의 관계는 심미적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내포까지도 지녔기 때문이다.<sup>19)</sup> 즉, 조선 시대에 <사씨남정기>를 읽으며 독자들이 흘린 눈물을 서포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 자체가 독자의 심미적 체험을 계몽의 결과이자 증거로 환원하는 오류이다. 또한, 작품에 대한 독자의 이해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지속되고 풍부해지면서, 작품에 대한 미적 체험은 다양해지고 동시에 일종의 미학적 서열이 존재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사씨남정기>를 서포의 의도와 다르게 읽으려는 현대 독자들의 입장도 <사씨남정기>의 가치를 체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하다.<sup>20)</sup>

19) 작품에 대한 독자의 수용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역사적인 성격을 띠는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야우스, 앞의 책, 178쪽.

20) 야우스는 이러한 현상을 기대지평의 변동, 또는 심미적 거리로 설명한 바 있다. 이른

두 번째로, 독자의 수용 체험에 의해 작품이 완성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고소설의 주제와 구성이 권선징악으로 천편일률적이라는 비판은 작품의 선형적 구조를 가정하여 독자의 예술적 체험의 주체성과 다양성을 무시하는 해석적 독재이다.

텍스트의 구성은 문학적 체험에서 환기되는 서사의 표층이고, 주제는 문학적 체험의 이념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둘은 결국 소설 수용에 관여하는 여러 요소들 중 일부일 뿐이다.<sup>21)</sup> 이때 소설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수용은 독자의 개인사적인 경험과 장르에 대한 이해, 관련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 다양한 가치관과 미적 취향 등에 의해 다채롭게 펼쳐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선인이 승리하고 악인이 패배한다는 이야기 전개로써 독자의 수용 체험을 대신하는 것은 독자의 수용과정에서 관여하는 조건과 그 결과를 혼동하는 일이다. 나아가 고소설의 주제와 구성이 권선징악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서사의 표층에 근거하여 독자의 수용 과정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해석 행위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독단적인 판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고소설의 주제와 구성을 권선징악적으로 보는 것은 실체를 확정할 수 없는 모호한 수용 경험에 근거한 판단이다. 고소설의 구체적인 텍스트에서 권장되는 선이란 주인공의 승리라는 사건 전개로써 환유되거나 환기되는 것일 뿐, 그것의 도덕적 실체와 수용적 실체는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바 결작들은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체험을 구태의연한 것으로 돌리고 새로운 기대지평을 생성함으로써 '고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야우스, 앞의 책, 182~190쪽.

21) 소설이 언어로 쓰인 예술 텍스트이지만, 독자의 소설 텍스트 감상은 언어로 표현되는 국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언어적이고 초언어적인 감상은 모든 예술 체험의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주제처럼 작품에서 환기되는 중심 의미의 언어적 표현은 소설 수용의 일부를 드러낼 뿐이다.

가령, <유충렬전>에서 충신 유충렬이 승리하고 간신 정한담이 죽었다고 하여 이 작품의 구성과 주제를 권선징악으로 볼 수는 없다. 아버지를 유배 보낸 천자에 대한 유충렬의 항거와, 근본적으로는 봉건질서의 모순에서 유래된 정한담과 유충렬의 대결 등에서 독자들은 얼마든지 작품 소개 문헌에 나오는 것과 같은 표준적인 사건 전개와는 다른 자기만의 구성과 주제를 주체적으로 환기할 수 있고, 그것이 독서 체험의 중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들이 체험하는 권선과 징악이란 누구나 동의하거나 서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한담의 내장과 사지를 베어 먹는 처벌 장면에서 발견되는 카니발적 속성은 전쟁이라는 사회 모순의 폭력적이고도 극단적인 갈등을 한 개인에 대한 처벌로 재현함으로써 권선징악의 고답성과 소박함을 부정한다. ‘천박한 권선징악의 교훈 비유담’으로 보기엔 이 작품의 도덕적 지향은 소박하지 않고 현실보다 급진적인 도덕적 상상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즉 고소설의 구성과 주제를 권선징악적이라고 보는 것은 작품의 선험적 구조를 가정하여 독자가 지닌 해석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소설에 대한 독자의 수용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의 심화를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때, 고소설의 구성과 주제를 권선징악적이라고 보는 것은 소설 텍스트의 수용을 도덕적 지향으로 획일화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범주에서 빚어지는 소설 텍스트의 수용을 선악의 도덕 범주로 환원하고 이를 정당한 것이라고 유포함으로써 독자의 역동적인 수용과 예술을 통한 미적 고양의 기회를 차단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충렬전>의 수용을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텍스트에 형상화되어 있는 다양한 현실의 면모와 이에 대한 독특한 형상화 방식에 대한 미적 수용을 간과하는 일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홍부전>을 교훈담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농촌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의 재편에

서 빚어진 갈등에 대한 소설적 대응으로도 볼 수 있다. 가난한 흥부가 자신의 경제적 처지에 상관 없이 형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은 경직된 형제 윤리의 폐해를 고발하기도 한다. 환곡을 얻으러 가면서 자신의 신분과 이방의 신분이 다름을 떠올리며 말투와 옷매무새를 신경쓰는 모습은 신분 제도의 구속력을 웃음거리로 삼는다. 가난한 흥부 부부가 온갖 노동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초현실적인 과정으로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선인에 대한 보상이라는 서사적 논리를 통해 경제적 착취 구조의 제도화를 은폐하기도 한다. 가난 타령의 애원성은 그 자체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의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 모든 감상은 권선징악의 논리로 포괄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볼 때, 고소설에 대해 구성과 주제가 권선징악적이라고 보는 것은 작품의 선형적 구조를 가정하여 독자의 예술적 체험의 주체성과 다양성을 무시하는 해석적 독재이다. 오랫동안 고전 문학 교육에서 고소설의 주제는 권선징악이라고 가르쳐 온 것은 학생들의 주체적이고도 다양한 텍스트 감상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이해와 통찰, 자신과 이웃에 대한 성찰과 연민의 계기를 제공해야 할 고전적 작품에 대해 그 가치를 체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유도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까지 고소설 권선징악론이 작품의 구성과 주제에 대해 선형적 실체를 가정한 판단이었고, 이는 독자 수용의 주체성과 다양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잘못되었음을 논증했다. 이는 일부 고소설이 교화주의적 창작 의도 아래 지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소설 텍스트는 작가의 의도와는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텍스트의 가치는 독자의 독서 행위를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 근거하였다.



#### 4. 결론

이 논문은 고소설 권선징악론을 검토하고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하고자 하였다.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의미의 권선징악은 오랫동안 고소설을 설명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되었다. 그 세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고소설은 구성이 권선징악으로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이다. 즉, 선악의 대립에서 선인의 우연한 승리를 그리는 뻔한 구성을 고소설 작품들은 취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고소설의 사회 반영성과 작가 의식의 단일함을 비판한다.

둘째, 고소설은 주제가 권선징악으로 천박하다는 것이다. 즉, 고소설은 현실의 첨예한 갈등을 담아내지 못한 채, 도덕적 당위으로써 현실 인식을 대체한다고 지적함으로써, 고소설의 현실성을 비판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기존 논의에서는 권선징악의 보편성으로써 반박이 있었다. 즉, 권선징악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이에 대한 예술적 추구가 비판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런 맥락에서, 권선징악은 비단 고소설뿐만 아니라 계몽적 성격을 띠는 다른 소설에서도 발견되므로 고소설에 대한 비판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박은 고소설 권선징악론이 소설사에서 고소설로부터 근현대 소설이 분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편협한 판단이었음을 밝혔다. 여기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소설이 권선징악의 특징을 지녔다는 주장과 그것이 고소설의 예술적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박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이에 대해 소설의 구성과 주제, 나아가 예술적 가치는 작가 중심적 관점이나 형식주의 관점이 아니라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 세부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수용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볼 때,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형상화 사이의 관계는 매우 불안정하다. 즉, 작가의 의도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작품의 구체적 형상화를 작가 의도의 실현으로 볼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둘째, 독자의 수용 체험에 의해 작품이 완성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고소설의 구성과 주제가 권선징악이라는 주장은 작품에서 선형적인 구조를 가정하여 독자의 체험을 무시하는 해석적 독재이다. 작품의 구성과 주제는 오직 독자의 능동적인 수용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것은 독자 개인의 체험으로써 다양성을 지니기에 권선징악론은 가상의 수용 체험을 전제한 판단인 것이다.

셋째, 소설에 대한 독자의 수용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의 심화를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고소설 권선징악론은 소설 텍스트의 수용을 도덕적 범주로 획일화한다. 즉, 소설 텍스트의 수용을 선악의 도덕적 범주로 환원하고 이를 정당한 것이라고 유포함으로써 독자의 역동적인 수용과 예술을 통한 미적 고양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텍스트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독서 체험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진실이 아니다.

## 참고문헌

- 강재철, 「고전소설의 주제 ‘권선징악’의 의의」, 『국어국문학』 99, 국어국문학회, 1988, 133~147쪽.
- 강재철, 『권선징악 이론의 전통과 고전소설』,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1993, 1~181쪽.
- 강재철, 『권선징악 이론의 전통과 고소설의 비평적 성찰』, 단국대학교출판부, 2012, 1~495쪽.
- 권보드레,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2, 1~352쪽.
- 김경애, 「‘권선징악’에 대하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5, 405~430쪽.
- 김만중, 이레종 역, 『사씨남정기』, 태학사, 2004, 1~349쪽.
- 김영수, 『필사본 심청전 연구』, 민속원, 2001, 1~545쪽.
- 김종철, 『판소리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6, 1~330쪽.
- 우한용, 「문학교육과 도덕성 발달 : 문학교육과 도덕성 발달의 의미망」, 『문학교육학』 14, 한국문학교육학회, 2004, 11~40쪽.
- 이강엽, 「고전서사물에 나타난 악의 성격과 대처 양상」, 『어문학』 90, 한국어문학회, 2005, 263~292쪽.
- 이지영 역, 『창선감의록』, 문학동네, 2010, 1~481쪽.
- 정재찬, 「문학교육과 도덕적 상상력」, 『문학교육학』 14, 한국문학교육학회, 2004, 41~78쪽.
- 조현우, 「고소설의 악과 악인 형상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 『우리말글』 41, 우리말글학회, 2007, 191~216쪽.
- 지촌강재철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고전소설과 권선징악』, 단국대학교출판부, 2013, 1~457쪽.
- 천정환, 「계몽주의 문학과 ‘재미’의 근대화」, 『역사비평』 2004년 봄호(통권66), 역사비평사, 2004, 343~363쪽.
- H.R.야우스, 장영태 역, 「문예학의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문학과 지성사, 1983, 151~218쪽.

ABSTRACT

A Criticism of the Insistence on Encouraging Good and Punishing Evil  
in Old Korean Novel

Lee, Jeong-won

In this study, I want to criticize the insistence on encouraging good and punishing evil in Old Korean Novel. Encouraging good and punishing evil is regarded as a important feature of Old Korean Novel. The issues of this insistence are two. The first is that Old Korean Novel is always composed of encouraging good and punishing evil. And the second is that the theme of Old Korean Novel is always encouraging good and punishing evil so that it can't reflect the real world.

There were some articles that refuted this insistence with the universality of this morality in art. According to these articles, encouraging good and punishing evil has always been a universal theme of art so that it is unfair to criticize the moral feature of Old Korean Novel. These articles show that the insistence on encouraging good and punishing evil in Old Korean Novel originated in the attempt of building new history of modern novel. But these articles could not refute the existence of the moral fact and the unfair evaluation of the history of modern novel about Old Korean Novel.

In this paper, I tried to shift the perspective of this matter. Because the plot or theme and more the value of novel could be evaluated in reception aesthetics not in authorial purpose or formalism. The new issues of this are three. First, from the point of view that reception of reader about tex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thorial purpose and the embodiment of text is very unstable. Second,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ext can be completed to work only by the reception of reader, the insistence that the plot and theme of Old Korean Novel is always encouraging good and punishing evil assume a transcendental structure

in disregard of reader's reception. So this insistence is a kind of dictatorship of interpretation. Third,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reader usually aspire to explore the higher understanding about the self and the world, this insistence do not admit the diversity of reader's reception but only moral enlightenment. And this is not true because the aim of actual reading can not restricted within morality.

**Key Words** Old Korean Novel, Korean Classics, Encouraging Good and Punishing Evil, Morality, Reception Aesthetics, Reader

논문투고일 : 2017.03.31
심사완료일 : 2017.05.04
게재확정일 : 2017.05.15